

투석 환자의 코로나19 추가접종에 대한 권고문

전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팬데믹 상황이 쉽게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시작하여, 전국민의 70%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.

투석 환자를 포함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서 지난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비해 일찍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. 그러나, 만성신부전 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가 일반인에 비해 두드러지며, 한 명의 확진자가 다수의 밀접접촉자 및 이차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투석실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추가접종(부스터샷)이 꼭 필요합니다. 게다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에 따른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,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.

현재 코로나19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투석 환자의 추가접종에 대해 다른 나라의 권고안 및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.

1. 투석 환자에서 항체 유지기간이 일반인에 비해 짧고, 형성되는 항체가 낮으므로 **필수적으로 추가접종을 권고합니다.**

2. 추가접종은 3차 접종과는 다른 개념으로 **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.**

* 단, 기본접종으로부터 추가접종까지의 간격은 추후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3. 추가접종시 사용하는 백신은 **mRNA 백신(화이자 또는 모더나)을 권고합니다.**

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, 투석실 의료진과 환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,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대한신장학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의료진과 환자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

2021년 12월 14일

대한신장학회 COVID-19 대응위원회